광주은행 공채 16명중 11명 합격

전남 특성화고 '인재 많네'

모두 16명을 뽑은 광주은행 공채에서 전남 특성화고(옛 전문계고) 재학생 11명이 무더기 합격해 주목받고 있다. 전남 특성화고 학생들이 대졸자들에게도 '좁은 문'인 은행권에 대거 입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상업계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한 광주은행 공채에서 전남의 순천 효산고가 2명의 합격자를 내는 등 모두 10개 학교에서 11명이 최종 입사관문을 통과했다. 광주지역 특성화고 재학생 5명도 합격했다.

모두 3학년인 이들은 1차 인·적성 검사, 2차 경제·금융 상식 시험·임원 면접, 3차 광주은행장과 1대1 면접까지 전 과정을 무난히 통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은행은 당초 한자릿수 인원을 채용하려 했으나, 전남 학생들의 성적이 빼어나 채용인원을 크게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광주은행에 입사하게 된 것은 '전남도교육청-광주은행간 MOU 체결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MOU를 바탕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취업문호를 여는 등 협력 체계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달 1일부터 2개월 연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광주은행 각 지점에서 정식직원으로 근무한다.

순천효산고는 2명의 합격자를 냈고 벌교제일고, 법성고, 순천청암고, 여수정보과학고, 영산고, 문향고, 진성여고, 목포여상고, 목포성신고는 1명씩을 배출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농촌 빈집털이범 잡아주세요"

잇단 절도피해 남구 대촌동 주민 조현오 경찰청장에 호소

"최근 3년 동안 5차례나 집에 도둑이 들어 정든 고향집을 떠나고 싶은 심정입니다."

치안부재로 절도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광주의 농촌지역인 남구 대촌동에 사는 주민 송모(45)씨는 지난 25일 경찰청 홈페이지 '청장과의 대화'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려 대책을 호소했다. "오죽하면 이런 글을 올렸겠느냐"고 탄식했다.

그는 광주의 농촌지역에 빈집털이 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경찰에 도움을 촉구했음에도 이날 오후 또다시 자신의 집에 도둑이 침입한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근처에 남부경찰서 대촌파출소가 치안을 담당하고 있어, 신고를 여러번 해봤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잡을 수 없으니 개인이 알아서 보안장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잡을 수가 없을지, 알고도 못 잡는 것인지 참으로 무책임하고 답답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송씨가 살고 있는 대촌동 지역의 경우 지난 9월말 한 집에서 현금 등 30만원 상당의 금품이 털렸으며, 8월 중순 비닐하우스에 보관돼 있던 수십만원 상당의 고추 지지대용 철근이 도난당하는 등 크고 작은 절도 사건이 계속됐다. 〈광주일보 10월 5일자 6면〉

대촌동 지역을 비롯한 농촌지역에서 발생한 잇단 절도의 원인으로는 경찰의 치안활동이 도심 위주로 이뤄지면서 농촌지역 관할 파출소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이 배치된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승촌·지석·이장 등 총 15개 법정동으로 이뤄진 남구 대촌동은 대표적인 농촌지역으로 남구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관할 파출소 인원은 소장과 관리직원을 포함해 모두 9명에 불과하다. 파출소 운영이 3교대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 2~3명의 경찰관 방대한 농촌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송모씨는 "마을에 CC-TV를 설치하고자 알아봤는데, 시골마을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 어쩌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행정기관과 협조해 폐쇄회로 TV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재원이 열악해 확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파출소 관계자는 "순찰하는데만 2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적인 특수성과 인력부족으로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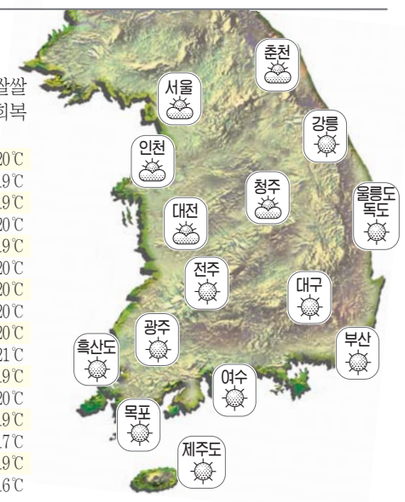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48분 해짐 17시 44분 달뜸 07시 05분 달짐 17시 49분

농작물 관리 '주의'

아침 한때 기온이 떨어져 쌀쌀하고 낮부터 평년기온을 회복하겠다.

광 주	맑음	6/20℃
목 포	맑음	8/19℃
여 수	맑음	11/19℃
나 주	맑음	3/20℃
완 도	맑음	8/19℃
구 례	맑음	2/20℃
강 진	맑음	5/20℃
해 남	맑음	3/20℃
장 흥	맑음	3/20℃
순 천	맑음	7/21℃
영 광	맑음	4/19℃
진 도	맑음	4/20℃
전 주	맑음	4/19℃
군 산	맑음	4/17℃
남 원	맑음	1/19℃
흑산도	맑음	12/16℃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먼바다	북~북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먼바다	북동~동	1.0~2.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낮음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0.5m
먼바다	북~북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먼바다	북동~동	0.5~1.5m

	밀물	썰물
목포	01:45 14:25	07:09 19:42
여수	09:10 02:36	21:17 15:1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8(금)	28(토)	30(일)	31(월)	11/1(화)	3(수)
날 씨						
최저/최고	9/20	10/19	11/19	10/20	10/20	11/21

멧돼지 수렵장 대폭 늘린다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까지 30곳 개설

멧돼지의 출몰이 빈번해지고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가 수렵장을 지난해보다 크게 늘려 개체 수 조절에 나섰다..

환경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전국 7개 도에 30개 수렵장을 개설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수렵장 수는 전국적으로 전년보다 8개 늘어났으며, 전남북지역은 4개에서 7개로 크게 증가했다.

전남의 수렵장은 강진·함평·장성 등 3곳이며, 전북은 정읍·김제·진안·임실 등 4곳이다.

정부가 수렵장을 대폭 확대한 것은 지난해 구제역 발생 등으로 수렵장 운영기간이 단축되면서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 수렵 조수의 서식밀도 조절이 미흡해 농작물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생 멧돼지는 농작물 피해는 물론 도심 지역에서 각종 인명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도별 야생 멧돼지 포획 현황을 보면 2008년 5801마리, 2009년 1만35마리, 2010년 1만1513마리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2008년 56억원에서 2009년 53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64억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화재시 시민 구조는 이렇게… 26일 오후 광주 무등경기장 축구장에서 열린 '2011년 호남권역 긴급구조 종합훈련'에서 119구조대원들이 화재로 건물에 고립된 시민을 구조한 뒤, 로프를 이용해 지상으로 내려오는 시범을 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한열 열사 추모사업 참여폭 넓어졌다

기부금 소득공제…자동이체 기부 가능

1987년 민주화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진 故 이한열 열사의 추모사업을 보다 넉넉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한열기념사업회는 최근 사업회가 기획재정부에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회에 기부금을 낸 사람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 때 쓸 수 있다. 사업회는 기존 자동납부이체(CMS)와 계좌이체 외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 모금이나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한열기념사업회는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된 이한열 열사의 뜻을 기리려고 1987년 설립된 추모사업회가 전신이다. /연합뉴스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용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04-중-4738호